

나주 산포 비상활주로 폐지 요구 거세다

대책위 출범...이전 등 축구
우회도로 건설 후 기능 상실
인근 마을 건축 제한 등 피해
항공유저장고 한전 인접 위험

국토부 내달까지 활주로 포장
국방부에 소유권 이전키로



비상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한전 건물. 주민들은 활주로 내 항공유 저장고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전주기 비상
활주로를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
은 지난 19일 산포 복지관에서 '비상활주
로 폐지 대책위'를 출범하고, 강병안 산포
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김춘식 전 시의원,
주민 김효경 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 나주시역 광역·기초의원들도 최근
산포 비상활주로 현장을 방문해 활주로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활주로
폐지 및 이전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산포 주민들, 폐지대책위 출범=이
처럼 주민들이 비상활주로 폐지를 요구
하게 된 계기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이달 말께부터 수십 년간 방치해 오던
활주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이동주(80·산포면 내거리)씨는
"36년간 활주로 주변 마을이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행위 등의 피해를 받아왔다. 안
개가 자욱한 날은 외지인들이 바리케이
드를 발견하지 못해 자주 사고가 난다"
며 "산포 비상활주로는 혁신도시의 건설
에 맞춰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빛가람 혁신도시
경계에 항공 유류(IP-8) 저장고가 위치
해 있어 자칫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입장
이다.

더욱이 저장고와 100여m 떨어진 혁신도
시에는 954세대와 147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혁신도시
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비상활주로 파견
부대 입구에는 군용 위험물이라는 표지
판에 기름 종류와 저장량 등이 표기돼 있



1979년 건설된 나주시 산포면 비상활주로.

었다. 김춘식 산포 비상활주로 폐지 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방
부에 올리고 활주로 포장을 할 경우 먼민
들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수년 전 공군 참모총장을 면담했을 때
군에서도 비상활주로의 최소 전연장 3.3
km에 못 미치는 2.4km 길이의 산포 비상
활주로는 기능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항공유 저장고 건설 당시에는
여러 개의 격납고에 폭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만간 국방부에 비상활주
로 폐지 및 이전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
낼 예정이다.

또 강인규 시장에게도 비상활주로 폐
지 및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
구하고 시나 국방부에 비상활주로 폐지
및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실시를 건의

할 계획이다.
◇우회도로 개통후 비상활주로 기능
잃어=항공유 저장고가 혁신도시에 자
리한 한국전력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
실에 한전 직원들도 당황하는 눈치다.
직원들은 호혜원과 같은 약취시설이
문제이지만 반경 500여m 내에 위험물시
설은 더욱더 혁신도시와 공존할 수 없
다는 반응이다.

만약 유류 저장고가 폭발할 경우 500
m 가량 떨어진 한전건물 등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맞닿
은 곳에 고성능 항공유 저장고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혁신도시 발전
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하루빨
리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거나 폐지됐으
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관리 파견대가 근무하는 곳에 항공기 격

납고(이글루)가 있다. 개인 화기와 물자
들을 넣어 두는 곳으로, 주민들이 주장하
고 있는 폭탄 저장고는 없다"며 "유류 탱
크에도 현재 항공기유는 전혀 없고 휘발
유 3드럼과 경유 10드럼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산포 비상활주로는 1979년 국도 1호선
구간에 총 연장 2.4km, 폭 45m 규모로 준
공됐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우회도로 건설로
1999년부터 도로 용도가 폐지된 이후 관
리 미흡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 폐지 후
국방부에 소유권 이관과 관리전환을 요
구했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워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지난해에야 국토
부가 비상 활주로를 포함한 후 국방부에
소유권을 이관하고 관리 전환하기로 협
약을 체결했다.

전국에 산재한 비상활주로는 나주를
비롯해 수원, 영주, 남지, 죽변, 목포 등 6
곳으로, 국토부 소속은 나주와 영주 활주
로 2곳뿐이다. 또 수원 비상활주로는 지
난 2014년 폐지된 후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
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가 인수를
거부해 16년 동안 해마다 수 천만원씩 비
상활주로에 대한 관리비 예산을 쏟아 부
어왔다"며 "국방부에서 활주로에 재포
장 공사를 해주면 소유권을 이관하겠다
고 해 올해 예산 18억원을 확보하여 이달
말에서 다음달 사이에 재포장을 한 후 소
유권을 국방부로 바꾸어 관리 전환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나주시 농가·업체 수출물류비 8억 지원 도내 최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농가와 업체
에 지원하는 나주시의 수출물류비 규모
가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해에 449 수출농가에 5억2200만원, 40
개소 수출업체에 2억700만원 등 7억
75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이
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전체 예산액의
28%를 차지한다.

지원 대상 농작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가공하지 않은 과실류(배)
▲채소류(멜론·고추·토마토·배추) ▲

화훼류(심피디움) ▲버섯류(팽이·새송
이) 등 10개 품목이다.

시는 수출농가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수출확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
을 주기 위해 올해 지원기준을 표준 물류
비의 20%까지로 높여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10억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주시 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농가와
업체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물류
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나주시 농산물 수출실적
은 148억6000만여원(5360t) 규모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2016 도시재생 공모사업 2차 PT 발표

나주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6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일반재생형) 2차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했다. 이날
PT는 박은호 부시
장이 도시재생 사
업계획과 지속가능
한 실행계획들을
한 실례계획들을
담은 내용을 발표
했다.



박은호 나주시 부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역사도시사업
단과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
를 앞두고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50점 ▲2차 발표심사 50점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3% 추가배점 등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시는 4월 29일 도시재생 공모사
업 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근 1차 서류심
사 관문을 통과했다.

강인규 시장은 신정훈 의원(새정치민
주연합, 나주·화순)과 국토교통위원장
인 박기춘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남
양주시 을), 이윤석의원(무안·신안), 박
지원 의원(목포)을 찾아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설명했
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인터넷진흥원 저소득가구에 성금...3년째 희망나눔

오는 2017년 빛가람학
신도시에 등지를 뜨는 한
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이 3년째 지
역 희망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이전지역 나주시 다도면
노사공동 희망나눔
기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
근 나주시 다도면 저소
득 가구에 성금 100만원
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한국인
터넷진흥원 노동조합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 협동조합, 지자체 사회공헌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13년부
터 나주시 관내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나눔 문화 실천을 꾸준히 해 오
고 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ICT(정

보통신기술)산업 진흥과 국민의 정보보호
발전을 주도해 온 인터넷 진흥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풍
토 조성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지
하 1층·지상 8층(연면적 1만6666㎡) 규모
신사옥을 착공, 내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
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60주년 호남예술제 새싹그리키 대회

접수기간
2015. 6. 9(화) ~ 6. 12(금)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2015년 6월 25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키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